

# 청제국의 신강지역 정복과 통치에 대한 서구의 최신 성과 2편 소개

Peter Yun    고구려연구재단 연구위원

20세기 서구 학계의 청대 국제관계사 연구 초점이 서구와의 교류에 맞추어져 있다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이라고도 할 수 있다. 서구와의 교류가 중국의 동해연안에서 이루어졌기에 그에 대한 연구 역시 해상 무역항에 치중되었는데 이 분야의 첫 번째이며 대표적 업적으로는 미국의 중국학 대부라고 할 수 있는 페어뱅크 (John K. Fairbank)의 *Trade and Diplomacy on the China Coast*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1953)를 꼽을 수 있다. 페어뱅크의 영향 아래 서구의 청대 ‘중국사’ 전공자들은 최근까지도 동중국해로부터 시선을 돌리지 못하였고 청의 내륙아시아적 성격과 서북방 변경(frontier) 문제는 거의 무시되어 왔다.

그런데 Pamela Crossley, Mark Elliott, Nicolo Di Cosmo, Evelyn Rawski 등 몇 소수의 서구 학자들은 최근 청조의 내륙아시아적 성격을 이해하려는 노력을 꾸준히 전개해 왔다. 특히 미국 아시아학회 (Association for Asian Studies) 회장이었던 로스키는 현대 중국의 한족 중심적이고 국가주의적인 민족주의 사학이 만주 청제국의 역할과 중요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sup>1)</sup> 그들은 기존의 단순한 한화 이론 등의 한족중심적 시각을 부정하면서 만주 중심적(Manchu-centered)인 혹은 ‘내륙아시아’ 관점(Inner Asian Perspective)을 통해서만이 만주제국의 팽창과 특성, 통치 방식 등의 정확한 그리고 전체적인 이해가 가능하다고 보았다.<sup>2)</sup> 이미 『만주연구』 제2집에서 내륙아시아 관점에서 접근한 최근 서구학계의 몇 성과를 소개한 바 있는데 여기에서는 만주제국의 ‘내륙아시아적’ 성격을 구체적으로 볼 수 있는 청나라의 신강 정책에 대한 서구의 최신 연구 두 편의 저서를 소개해 보고자 한다.

제임스 밀워드(James A. Millward)는 1998년 출판한 *Beyond the Pass* 에서 신강이라는 非漢族 지역이 ‘중국’ 국가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중국’ 제국주의 혹은 식민주의적 입장에서 살펴보았다. 그리고 2005년 피터 퍼두(Peter Perdue)는 *China Marches West*에서 역시 신강지역에 초점을 두어 청 제국이 어떻게 효율적으로 그 주변지역을 정복하고 개척하면서 제국의 일부로 편입하고 있는가의 과정을 상세히 고찰하였다. 청나라의 정치형태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변경 문제를 이 두 저서가 비한족의 시각에서 접근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논문접수일 : 2005년 9월 26일, 게재확정일 : 2005년 9월 30일

1) Rawski, Evelyn S. 1996. "Presidential Address: Reenvisioning the Qing: The Significance of the Qing Period in Chinese History." *Journal of Asian Studies* 55.4: 829-850. 로스키는 *The Last Emperors: A Social History of Qing Imperial Institutions* (Berkeley and Los Angeles: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8)에서 ‘중국사’에서의 청대의 독특한 위치를 설득력 있게 보여 주었다.

2) 윤영인, 「만주족의 정체성과 한화(漢化) 이론에 대한 서구 학계의 신간 소개」, 『만주연구』 제2집 (2005년 4월), pp. 173-182 참조.

‘중국’ 전통기 왕조 역사에서 최전성시기를 꼽으라면 많은 학자들은 아마도 乾隆帝(재위 1735- 96, 1799 사망) 치하의 18세기를 꼽을 것이다. 건륭제는 모두 10회의 변방원정에 성공하였다고 하여 스스로 십전노인(十全老人)을 자칭하였다. 청제국은 대대적인 군사적 정복을 통해 한족왕조 명의 2배에 달하는 영토를 정복하였고 이 시기에 티벳, 신강, 몽골, 淸海, 만주와 대만이 모두 ‘중국’의 영역에 편입되었다. 청의 지배는 그 판도에 들어 온 이들 지역의 사회와 경제를 변화시켰고 결국 만주제국이 멸망한 후에도 북몽골(즉 외몽골, 현재의 몽골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이 아직도 ‘중국’의 일부로 남아있다. 지금의 ‘중국’이라는 국가의 공간과 민족적 구성을 처음 정립한 것이 바로 만주제국이었던 것이다.

제임스 밀워드의 *Beyond the Pass*는 청대 非한족 지역이 ‘중국’의 일부로 편입되는 과정을 전문적으로 다룬 첫 번째 연구 성과였다. 밀워드는 청나라시기 중원과 신강지역 사이의 상업관계, 만주제국의 신강 정복과 그에 따른 재정문제, 그리고 청 조정의 대응과 정책에 주목하였다. 서론에서는 왜 많은 역사가자들이 청의 신강 정책과 서북변경 지역에 소홀하였고 만주제국의 내륙아시아적 성격을 간과하였는가를 정리하였다. ‘중국사’ 전공자들이 “서구 충격과 중국의 대응”(Western impact/Chinese response), 조공제도, 중국적 세계질서 등의 패러다임에 기초하여 연구의 초점을 중원지역에 두었지만 밀워드는 청조가 한족왕조가 아닌 만주족이 통치한 다민족제국이었음을 새삼 강조한다. 이어서 1장에서 신강의 지리적 역사적 배경을 분석하였고, 2장과 3장에서는 신강의 재정 문제를 해결하려는 청 조정의 정책과 그 한계를 보여준다. 4장과 5장은 한족 상인과 물자가 신강에 침투하는 과정을, 6장에서는 그러한 상업관계가 청의 신강 민족정책에 미친 영향을 다루었다. 결론에서 밀워드는 1820-60년대 청의 통치가 약화된 경제적 요인과 18세기 청대의 제국개념이 이후시기에 중국국가에 의해 어떻게 변용 이용되었는지 설명하였다.

밀워드는 청의 변경정책에 대한 전체적인 이해를 추구하는데 특히 신강에 정착한 한족 상인들에게서 경제, 민족, 그리고 제국의 요소가 교차하고 합쳐지고 있음을 주시하고 당시 신강에 대한 인식이 바로 이들 한족 상인에게서 시작하였다고 보았다. 18세기 청의 신강정책은 초기에는 다민족제국에 편입된 신강지역을 한족의 상업 활동과 문화 침투로부터 보호하려고 하여 신강의 주민들을 ‘한화’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한족의 이주를 통제하였다. 밀워드는 신강의 정치적 상황이 급격히 악화되던 1820-30년에 주목하였는데 바로 이시기에 청은 기존의 정책을 바꾸어 신강에서의 한족 경제활동에 대한 제제를 풀고 있다. 코칸드(Kokand) 반란 이후 신강의 안정에 위협이 되는 존재는 한족상인이 아닌 신강의 원주민으로 인식되었으며(p. 231), 청 조정은 부족한 재정을 보충하기 위해 한족들의 신강지역 진출을 장려하게 된다. 실제로 신강지역은 재정적으로 자립을 하지 못하고 계속 중앙의 보조를 받아야 했다. 청 조정이 신강에 군대를 배치하여 중원에서 군대 규모를 감소하여 국가 예산이 절약되었다고 주장하였지만 밀워드는 여러 자료를 통해 신강의 통치를 위해서 매년 거의 백만 량에 이르는 보조금을 신강에 보내야 하였음을 밝히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의 은 유출은 당연히 중원에서의 은의 부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기존의 연구가 18세기 은의 부족을 중국 동남해 연안의 해상 특히 아편 무역에서만 찾은 것과는 달리 밀워드의 연구는 더 포괄적이고 설득력있는 해석을 제시하고 있다. 또 청은 서구 해양세력과의 충돌에서 보여준 소극적인 대응과는 대조적으로 서북 변경의 준가르국에 대해서는 매우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그 지역을 정복하고 궁극적으로 한족의 이주를 권장

하여 만주제국의 관도에 편입하였다(p. 116). 이러한 사실은 서구와의 무역에 대한 청나라의 태도와 대처를 ‘유교적’ 선입관이라는 단순한 문화론에 의거할 것이 아니라 만주조정의 정치적 입장과 시대적 배경에서 찾아야 할 것을 요구한다.

밀워드는 건륭제의 인식을 통해서 청제국을 이해한다. 건륭제의 다민족제국은 여러 문자로 새긴 비문과 문헌, 만주문자와 한어로 편집한 대규모의 자료를 그리고 황제 자신의 글에서 찾을 수 있는데 만주제국은 한족, 몽골, 티벳, 회족, 그리고 만주족이라는 독자적인 문화 민족 집단으로 구성되었고 청 황실이 이들 그룹의 민족성을 초월하여 그 위에 군림한다고 보았다. 여기서 여러 민족을 동등하게 인식하고 있는 건륭제의 제국인식은 페어뱅크가 설정한 ‘한족중심적 질서’와 정면으로 대치되는 것이다. 그런데 민족성을 초월한 청제국의 정치성이라는 밀워드의 시각이 만주족이 누리던 특권과 청대 팔기제도와는 모순되는 듯하지만 밀워드는 만주족의 특권이 ‘만주’라는 민족성에서 나온 것이 아니라 그들의 ‘정복자’라는 자격에서 기인한 것이었음을 강조한다.

그런데 청대 신강지역에 대한 인식은 곧 만주제국의 ‘자연적’ 영역에 대한 논의이기도 하였다. 물론 만주족이 모두 신강으로의 확장에 찬성하고 한족들은 모두 반대한 것은 아니지만 한족 학자들의 대다수는 청제국의 영역이 ‘중국’(즉 한족) 역사와 문헌에 반영되어 있는 ‘중국’의 자연적 한계와 일치해야 한다고 생각하였다고 밀워드는 보고 있다(p. 249). 그러나 한족 대부분이 만주제국의 서부 확장에 반대하였다는 의견은 쉽게 수긍하기 어려운 점이 있다. 저자 자신이 명확하게 보여주었듯이, 한족 관료나 학자가 아닌 다른 계층, 즉 신강에 정착한 한족 상인들의 활동을 보면 그들은 청제국의 서부 확장에 찬성하고 있었다. 또 밀워드는 만주족과 한족의 입장은 상세하게 다루면서도 정작 신강 지역의 ‘주인’이었던 몽골, 티벳, 위글족들의 관점은 거의 무시되었다.

이무튼 밀워드에 있어서 18세기 청 제국은 ‘아시아의 병자’(Sick Man of Asia)가 아닌 강력한 제국이었다고 신강에서의 청나라 정책과 활동은 분명한 ‘제국주의’였다. 물론 19세기 서구 제국주의와 청의 내륙아시아 통치에 분명한 차이가 있었다. 유럽의 식민주의가 대부분 경제적인 것이었음에 비해 신강은 청에 경제적인 이익을 가져다주지 못하였고 서구 제국주의의 선교활동에 비견되는 문화 이념적인 목표도 없었다. 즉 만주의 경우는 신강으로의 확장은 전략적인 것이었다고 할 수 있는데 그래도 경제 무역관계와 한족 이주 등의 정책에서는 서구 제국주의와 비견되는 분명한 식민주의적 패턴을 찾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런데 저자는 신강으로의 서부 정복과 개척이 청 조정의 정치적 정통성의 확립을 위한 기회였다는 사실을 과소평가하고 있는 것 같다. 청 제국의 신강지역 편입으로 인한 제국의 생활권 영역 확장이 청 조정의 정통성에 실제적(즉 경제적) 그리고 정치적(즉 이념적)으로 중요한 작용을 하였을 가능성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 저자가 서구 ‘제국주의’의 역사적 경험을 토대로 한 이론을 청나라의 역사에 그대로 적용하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는지 모르지만 만주제국 신강정책과 통치의 ‘제국주의적’ 성격에 대한 더 심도 있는 탐색이 아쉬움으로 남는다.

밀워드의 *Beyond the Pass*가 출간 된지 7년 만에 나온 Peter Purdue의 *China Marches West* 는 기존의 청대 신강지역 연구를 뛰어넘는 역작으로 평가받을 만하다. 이전의 연구자들이 거의 모두 한문으로 된 자

료에 의존한 것과는 달리 퍼두는 만주어와 몽골어의 자료에 나타나는 다양한 관점을 모두 보여주며 중요한 변수였던 러시아 측의 자료와 연구 성과도 충분히 반영되어 있다. 이러한 다각적인 시각은 청 제국이 효율적으로 변강을 정복하고 제국의 일부로 편입하는 과정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전에는 만주 조정이 하나의 문헌을 여러 언어로 기록한 것을 그 내용이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였지만 퍼두는 각 언어로 된 문장의 독자가 달랐던 것처럼 그 의미와 관점역시 달랐음을 보여준다(pp. 429- 442).

책의 제1부는 청과 러시아제국의 중앙유라시아로의 확장과 준가르 국가(Zunghar State)의 대두를 다루었고 2부에서는 청의 신강 정복 역사를 상세히 묘사하였다. 제3부 “제국의 경제적 기반” (The Economic Basis of Empire)과 4부 “변경을 정하다”(Fixing Frontiers)에서는 새로 정복한 신강지역을 제국의 일부로 편입하는 여러 과정과 정책, 그리고 이러한 과정에서 지도의 제작과 역사 편찬이 어떻게 그 인식을 바꾸었는지를 보여준다. 마지막 5부는 청 제국이 남긴 유산과 그에 대한 역사서술, 민족국가의 형성 이론, 청조의 변경확장과 멸망의 상관관계 등의 큰 주제에 대한 포괄적인 검토를 하고 있다.

특히 주목할 부분은 세계사의 마지막 유목제국이었다고 할 수 있는 준가르 국가이다. 15세기 내륙아시아의 유목민족은 신강과 몽골지역, 그리고 러시아와 시베리아의 일부를 통치하면서 200년간 러시아와 중국과 대치한 준가르 국가를 형성하였다. 만주 황제 입장에서 준가르국은 제국의 영토를 위협하고 만주제국의 세계질서 (혹은 ‘중국 중심적’ 질서)에 정면으로 대항하는 존재였다(p. 251). 청은 1750년대 서북경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대적인 정복 전쟁을 단행하였고 신강은 제국의 판도에 편입되어 아직도 ‘중국’에 속해 있다.

기원전 한나라와 흉노의 대립 이래 그 어느 한족왕조도 해결하지 못한 유목민의 문제를 청은 어떻게 성공적으로 해결할 수 있었을까? 퍼두는 청대 서부 영토 확장을 이전의 중국왕조와 연결하여 이해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제국이념과 국제정책, 군사 능력 등에 있어서 청나라는 이전의 한족왕조 명과는 전혀 다른 새 국면을 보여주었다(p. 507). 만주에서 흥기한 만주족은 계속되는 전쟁과 정복을 위해 그들 사회를 재구성하고 명이 에 무너지자 베이징으로 진격하여 중국을 정복하였다. 만주족은 중원에 만족하지 않고 계속하여 그 영토 확장을 이루었고 이러한 정복과 병행한 정치, 경제, 제도적 혁신을 만주제국 성공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 밀워드가 청의 신강정책을 제국주의로 본 것처럼 퍼두도 청 조정의 지도 (cartography)와 역사 편찬 (Writing Imperial History) 프로젝트 등에서 서구 제국주의와의 공통점을 발견하고 있다.

18세기 청의 준가르 평정과 신강지역 편입은 분명 대단한 정치적 군사적 성공이었다. 하지만 퍼두는 아 이러니하케도 이 서북 변경지역에서의 성공을 청 제국 멸망의 중요 요인 중 하나로 보고 있다(p. 552). 영국이 청국의 해안에 나타난 것은 1780년대인데 신강에서 큰 승리를 거둔지 얼마 안 되는 시점에서 만주 조정은 영국을 큰 위협으로 보지 않았으며, 나아가 서북의 정책을 해안지역에 적용하는 전략적 실책을 범하여 청조의 쇠퇴로 이어졌다고 본다.

700쪽이 넘는 분량이 말해주듯이 *China Marches West*는 흥미롭고 새로운 관점과 내용을 많이 담고 있다. 다만 너무나 많은 내용을 다루고 있다 보니 주제가 기술에 가려져 저자가 제시하고자 하는 시각이 깊게 다루어 지지 않은 감이 없지 않다. 거의 마지막 부분인 15장에 이르러서야 초원과 중원의 역사적 관계

를 보는 여러 이론에 대한 종합적인 검토와 방법론이 구체적으로 제시된다. 중앙 유라시아에서의 청제국이 라는 역사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특히 중앙유라시아의 유목문명과 국가형성론에 대한 이론적 배경이 없는 독자들에게는 15장을 먼저 읽을 것을 권하고 싶다.

밀워드와 퍼두의 저서는 ‘조공제도’와 ‘한화’ 등의 ‘한족중심적 세계질서’ 이론으로는 만주제국의 영토 확장과 내륙아시아 변방정책 등의 제국운영 실체에 다가설 수 없음을 분명히 보여준다. 중앙유라시아 여러 민족과 한족과의 관계 및 역사적 전개는 물론 ‘중국사’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위해서도 만주제국의 내륙아시아적 성격을 무시하거나 소홀시 할 수 없다고 강조하면서 이러한 만주제국의 독자성을 의도적으로 무시하는 현대 중국 민족주의 사학이 만들어낸 ‘중국’이라는 역사적 개념에 정면으로 반박한다. 현대 중국의 민족주의 사학은 청제국과 만주족 연구에 걸림돌이 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은 물론 세계 각처에 산거한 ‘중국 민족주의자’들은 지금의 중국영토가 ‘중국’ 국가의 절대적인 영역을 의미한다고 주장하며 중국 변경 소수민족 독립(분리)주의자들을 비난한다. 퍼두가 지적하였듯이 중국사학자들에게 청의 신강지역 ‘征服’도 ‘爭取’도 없고 다만 ‘統一’만이 있을 뿐이다(p. 510). 중국 역사학계는 만주제국이 정복한 영토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면서도 ‘중국’을 2000년간 이어 내려온 불변하는 사회정치적 존재로 보면서 청이 이루어 낸 거대한 영토 확장의 업적을 무시하거나 과소평가한다. 현대 ‘중화민족주의’와 중국 국가주의는 ‘중국’이라는 국가의 범위를 만주족의 청제국의 틀에 맞추어 재구성하려는 역사 프로젝트를 진행 중이며 이미 적지 않은 성공을 거두고 있다고 할 수 있다(pp. 513-17). 그러므로 티벳, 몽골, 만주, 그리고 신강이 언제나 불가분한 ‘중국’의 일부가 아니라 만주제국 정복의 산물이었으며 현대중국의 다민족 국가정책도 청대의 유산이었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는 이 두 권의 청대 ‘서부’ 연구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이에 대한 학계의 신중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